

발간등록번호

2019-교육지원-12

서울시 1인가구 정책세미나

일시 | 2019. 10. 17.(목) 14:00-16:00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주제 | 서울시 1인가구 현황과 과제

목 차

1. 기조강연

- 사회변화와 1인가구 문제-----11

2. 주제발표

- 서울시 1인가구 현황과 정책이슈-----25
- 가족의 변화, 1인가구의 의미와 과제-----31
-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사항과 과제-----39

3. 종합토론

- 1인가구의 다름을 고려한 정책방향-----49
- 1인가구의 일상과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접근-----53
- 서울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57

2019 서울시 1인가구정책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 10. 17.(목) 14:00~16: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 세부일정

진행순서			내용
14:00 - 14:10	1부	개회식	◦ 개회사 권금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 축사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14:10 - 14:35	2부	기조강연	◦ 사회 -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변화와 1인가구 문제 -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4:30 - 15:05		주제발표	◦ 서울시 1인가구 현황과 정책이슈 -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 가족의 변화, 1인가구의 의미와 과제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사항과 과제 -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5:05 - 16:00	3부	종합토론	◦ 김유경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서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교수) ◦ 조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획조정실장)

인사말

권금상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 불어와 몸과 마음 다독이는 아름다운 계절이 왔음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흘러가는 물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시간 역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모습을 한 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급변하는 서울시의 인구학적 특징은 ‘1인가구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전국 최초 ‘1인가구 지원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서울시 1인가구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책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 1인가구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많은 발전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1인가구정책세미나’ 행사에 함께 해 주신 내외빈,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기조강연

강연 ❶

사회변화와 1인가구 문제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변화와 1인가구 문제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문제제기

한국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경제, 정치,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는 1인가구의 급증에 따른 문제이다. 1인가구는 1인이 일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가족이 혈연을 바탕으로 한다면, 가구는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1인가구는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지칭한다.

1인가구의 증가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변화 중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농업사회에서 가족은 동일한 가구를 이루면서 살았다.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원들이 동일한 가구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통적인 가족의 삶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가족은 일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서로 다른 가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러기가족’은 자녀의 학업을 이유로 가족원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떨어져 사는 가족을 지칭한다. 대체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를 기러기가족이라고 불렀다. 한 가족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2개의 독립 가구를 이루어 살아간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1인가구 증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생활단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과거 1인가구는 아주 예외적인 가구 형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OECD 국가들에서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에 해당할 정도로 1인가구가 일반적인 가구 형태가 되면서, 1인가구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2. 1인가구의 현황은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1인가구의 비중은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1인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방글라데시 2%, 인디아 4%, 알바니아 6%, 베트남 7%, 멕시코 10%, 중국 15%, 홍콩 17%, 태국 18%, 뉴질랜드 22%, 한국 24%, 아일랜드 24%, 호주 24%, 그리스 27%, 영국, 31%, 일본 32%, 프랑스 34%, 독일 37%, 핀란드 41%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선진 산업사회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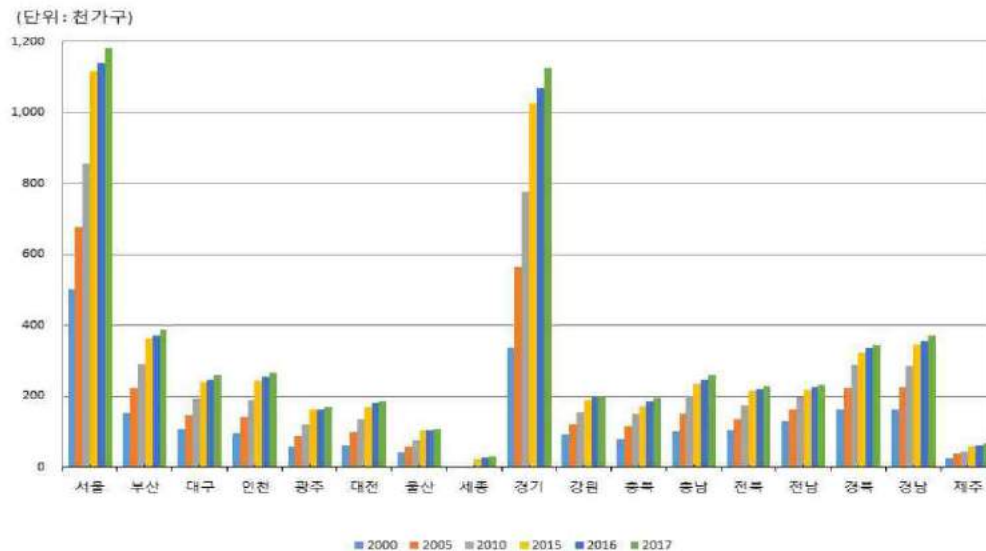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도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나타난 1인가구 증가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1인가구의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점이다. 1980년 전체 가구 중 4.8%에 불과하였던 1인가구는 2000년 15.5%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5년 27.2%, 2018년에는 29.1%로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2000년대 1인가구 비율이 한국보다 높았지만, 1인가구 증가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일본의 1인가구는 2000년 27.6%에서 2015년 34.1%로 증가하여, 5.5% 포인트 증가하였던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3.6% 증가하여 거의 2.5배 빠른 속도의 1인가구 증가를 보였다. 유럽 여러나라들이 35% 이상의 높은 1인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1인가구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도 관련이 있어서 노인 1인가구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지역 농촌의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이 높기때문에, 1인가구 증가도 농촌 지역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1인가구 비율은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농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특히 강원도 고성군(38.7%), 경상북도 영덕군(38.7%), 전남 곡성군(39.6%) 등은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농촌 지역이다.

셋째, 도시 지역에서의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것은 미혼 청년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관악구(47.6%)는 서울에서도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이들 지역은 젊은 청년 비율 또한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어서 청년 비중이 높다. 반대로 서울지역에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중구나 종로구도 1인가구 비율이 각각 39.2%와 39.7%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1인가구 증가는 한국 전체의 1인가구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한국 전체의 1인가구 비율은 1980년 4.8%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에는 9.0%로 연평균 0.52%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 2000년 15.5%에서 2018년 29.3%로 증가하여 13.8% 증가한 반면, 서울시에서는 2000년 16.3%에서 2018년 32.0%로 15.7% 증가하여 1.9% 포인트 더 높은 비율의 증가를 보였다. 2019년 현재 서울의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3 정도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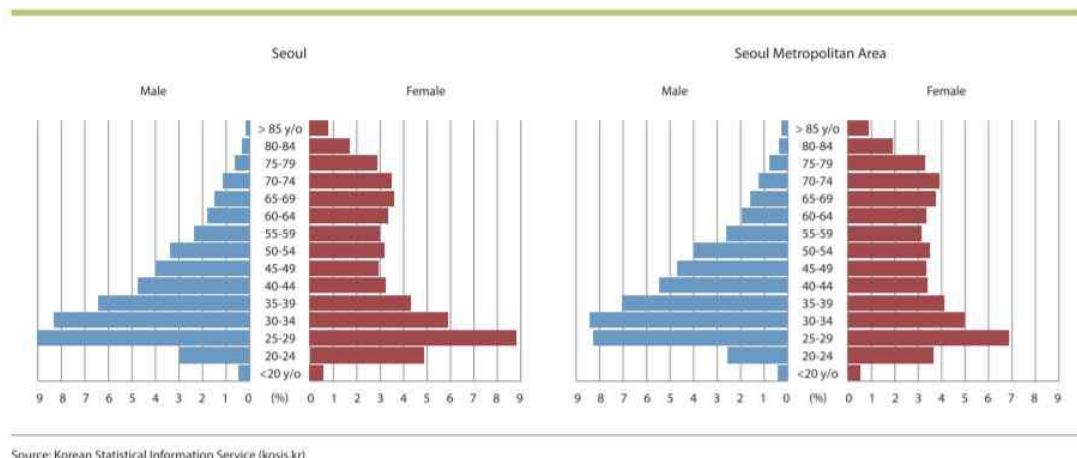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인구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p. 41.

3. 1인가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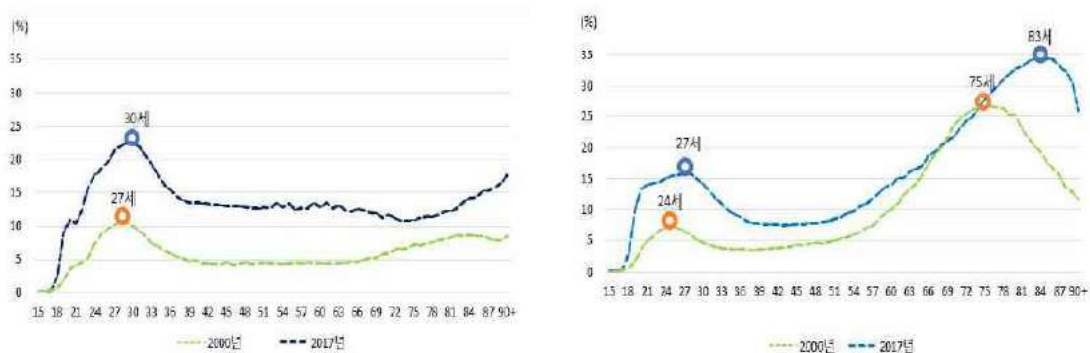
1인가구 증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1인가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이지만, 1인가구 증가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 1인가구는 2000년 94만5천 가구에서 279만2천 가구로 1.95배 증가하였고, 여성 1인가구는 127만9천 가구에서 282만7천 가구로 1.21배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1인가구는 30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이후 점차 낮아져서 70대 중반에서 다시 높아졌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27세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가 그 이후 낮아졌고, 다시 50대 초반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83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10년 연령별 남성과 여성의 1인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여성은 20대 후반에서 가장 높았고,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1인가구 비율이 높았다. 특히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편의 사망에 따른 여성의 1인가구 비율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이 1인가구가 되는 연령이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료: Seoul Institute(2019), Seoul Statistical Series, 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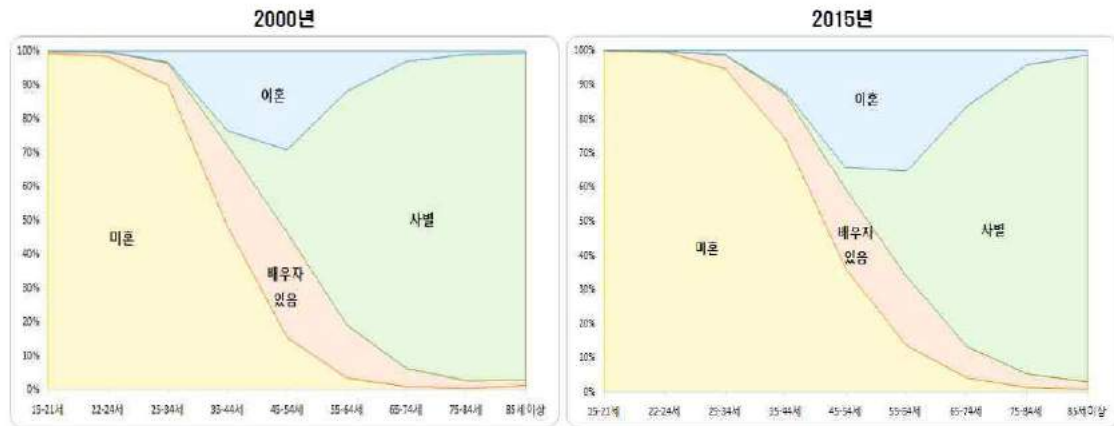
〈1인가구의 지역별, 연도별 추이〉 [일반가구원 대비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 비율 : 2000년, 2017년] 남자 여자



자료: 통계청(2018), 인구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 p. 10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의 변화를 보면, 미혼은 2000년 43.0%에서 2015년 43.8%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배우자 사망에 의한 1인가구는 2000년 35.1%에서 2015년 29.5%로 5.6% 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이혼에 따른 1인가구는 2000년 9.8%에서 2015년 15.5%로 5.7% 포인트 증가하였다. 배우자가 있으면서 1인가구로 사는 경우는 2000년 12.0%에서 2015년 11.1%로 0.9% 포인트 감소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혼인상태별 1인가구 추이는 이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1인가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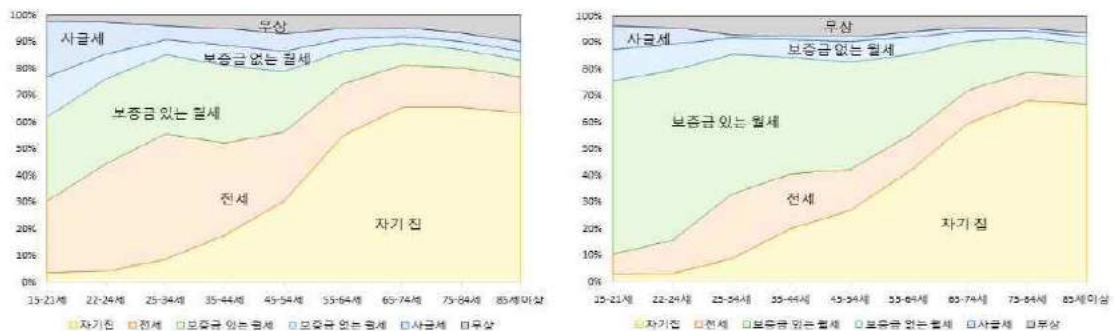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비율]



자료: 통계청(2018), 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p.21.

1인가구에서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세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가구에서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45-54세에서 2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55-64세로 연령대가 35.2%로 높아졌다. 또한, 수명이 길어지면서, 배우자 사망에 의한 1인가구 비중도 2000년에는 55-64세부터 급증하였으나, 2015년에는 65-74세로 높아졌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배우자 사망 연령도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형태별 비율 : 2000년,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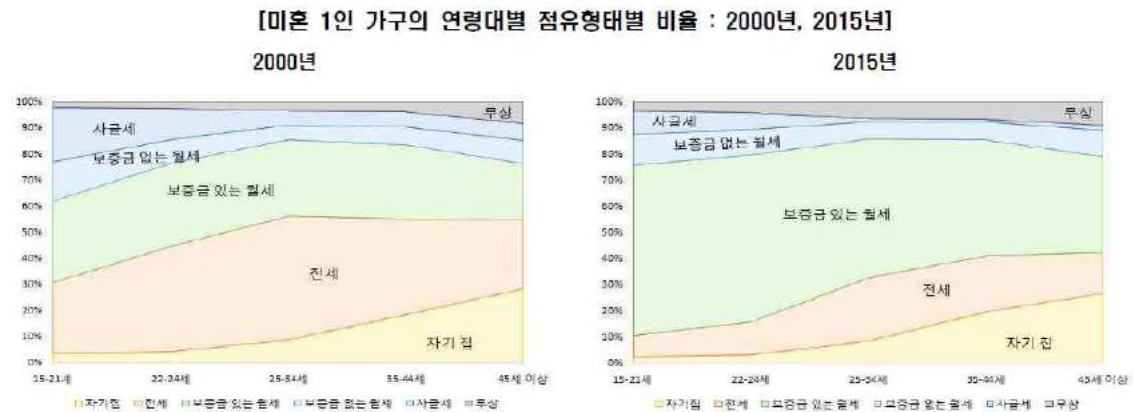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p.29.

미혼 1인가구의 주거 형태별 연령별 분포는 주거 문제가 미혼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2000년 25-34세 미혼 1인가구의 주거 형태에서 전세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거비용이 더 크게 지출되는 상황이 되면서, 청년 주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주거 불안정이

혼인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 1인가구의 자기집 소유 비율은 2000년과 2015년 사이에 큰 변화는 없었다.



자료: 통계청(2018), 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p.43.

4. 1인가구의 문제

한국사회에서 1인가구의 문제는 단적으로 빈곤 문제이다. 2018년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수준과 빈곤율은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와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인다. 1인가구의 평균소득은 빈곤을 이하이다. 전체 가구에서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을 얻는 가구 비율을 상대빈곤층이라고 하면, 2018년 한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2,016만원 정도였다. 전체 가구의 22.5%가 빈곤 가구에 속하였다. 1인가구의 평균소득이 1,935만3천원 정도였기 때문에,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였다. 그 결과, 1인가구의 64.5%가 빈곤 가구에 속하여, 1인가구의 대부분이 빈곤 가구라고 볼 수 있다. 2인가구의 경우, 평균소득은 1인가구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빈곤율은 28.4%로 1인가구보다 크게 낮았다.

〈가구원 수에 따른 평균소득과 빈곤율, 2018〉

가구원수	평균소득	빈곤율
1	1935.311	64.50
2	4086.797	28.39
3	6833.192	7.29
4	8307.806	3.55
5명 이상	8927.42	2.56

자료: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2018) 자료 필자 분석 결과

가구소득을 성과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높은 빈곤율은 고령층에 서만 나타나고 있다. 남성 65-74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6% 정도로 전국 빈곤율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75세 이상의 남성 노인 가구 빈곤율은 58%로 크게 높아졌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빈곤율도 50대 후반부터 대단히 높게 나타나, 남성 가구주 가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여성 가구주 55-64세 빈곤율이 41%로 매우 높았고, 65-74세 69%, 75세 이상 91%로 65세 이상의 고령 여성 가구주 가구의 절대다수가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주 성과 연령별 평균소득과 상대 빈곤율, 2018〉

가구주 성과 연령	평균소득	빈곤율
남성 19-34	4799.387	0.14
35-44	6781.924	0.06
45-54	8047.05	0.07
55-64	7212.805	0.11
65-74	4478.279	0.26
75+	2483.346	0.58
여성 19-34	3768.705	0.29
35-44	4201.367	0.29
45-54	4374.496	0.27
55-64	3509.273	0.41
65-74	1923.521	0.69
75+	1042.433	0.91

자료: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2018) 자료 필자 분석 결과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소득과 빈곤율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심각성은 더 잘 드러난다.

1인가구의 경우, 남성 35-44세 가구주 가구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빈곤율이 전국 빈곤율보다 높았다. 남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도 이미 40대 후반부터 빈곤율이 40%를 넘고 있어서, 극심한 빈곤 상태를 보여준다. 여성 1인가구주 가구는 이미 20대부터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가구주 연령 19-34세 가구의 빈곤율은 37% 정도로 3가구 중 1가구가 빈곤 가구였으며, 40대 후반 이후의 가구는 빈곤율이 49%를 넘어서 절반 이상이 빈곤 가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1인가구 평균소득과 빈곤율〉

가구주 성과 연령	평균소득	빈곤율
남성 19-34	3194.461	0.28
35-44	3865/528	0.22
45-54	3099.375	0.43
55-64	2216.585	0.56
65-74	1656.286	0.76
75+	1447.411	0.78
여성 19-34	2760.329	0.37

가구주 성과 연령	평균소득	빈곤율
35-44	3037.417	0.40
45-54	2880.404	0.49
55-64	1864.275	0.72
65-74	1438.189	0.82
75+	891.225	0.95

자료: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2018) 자료 필자 분석 결과

청년기 1인가구 대부분이 ‘보증금 없는 월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의 형태로 주거한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의 압박을 받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년기 1인가구는 절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남녀 모두 40대 후반부터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서, 1인가구 빈곤 대책이 시급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1인가구는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육체적인 불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건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경우, 고독사 문제가 현실적으로 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청년들의 경우, 결혼하기 힘든 상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5. 1인가구 대응 정책

1) 생애주기별 대책 필요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와 노년기 1인가구는 각기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과 중년 1인가구의 경우,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빈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이다.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청년 1인가구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더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남성과 여성의 대책이 달라져야 함

1인가구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에, 여성 1인가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부조 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부조가 강화되어야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개인 저축 프로그램 지원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개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저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저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

4) 1인가구 주택 확대

현재 1인가구는 주로 오피스텔이나 고시텔과 같은 영리 목적의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공영 혹은 준공영 1인가구 주택을 공급하여, 1인가구가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5) 농촌 노인 1인가구의 문제 대응

현재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농촌 1인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 마을의 재조적이 필요하다. 농촌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가 재배치를 통한 마을 만들기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

발표 ❶

서울시 1인가구 현황과 정책이슈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서울시 1인가구 현황과 정책이슈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도시정책에서 인구와 가구의 변화를 계량화하는 인구통계는 경제, 복지, 노동, 주택, 문화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서울에서 나타나는 출생율 저하, 경제활동 인구의 축소, 고령 인구의 증가 등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야기한다. 급속한 고령화(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 이상)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그 비율이 11.3%에 달하였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5). 2026년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책임져야 할 고령 인구의 수는 31.4명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단계에 접어든 2000년의 10.2명에 비해 세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고령 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이 26년 사이 세 배로 가중될 것이라는 말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와 밀레니엄 세대(1981~1997, 2015년 기준 18~34세 연령집단)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직면할 인구 부양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출생 코호트이다. 2026년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사회적 피부양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이들의 부양을 가장 많이 책임지게 될 코호트가 바로 지금의 밀레니엄 세대이다. 전국의 밀레니엄 세대는 총 1,18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 서울의 밀레니엄 세대는 총 255만여 명으로 서울 인구의 25.4%에 달한다(2015년 기준). 특히 청년세대를 포함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주거, 결혼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인구문제가 야기할 정책이슈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서울의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단순한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의 기저에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와 관계의 변화까지를 드러내고 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우리 사회의 캠페인이었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다.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들’로 정의하는 1인가구는 2015년 센서스 기준 서울 전체 가구의 29.5%인 111만 5,744가구이다. 잠깐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1980년 서울 1인가구는 8만 2천여 가구에 불과했다. 1인가구란 말이 낯설었던 그 시기, 단지 4.5% 사람들만이

혼자 살았던 것이다. 이로부터 5년 후인 1985년 1인가구는 15만 6천 가구로 늘어났고, 1990년에는 25만7천여 가구, 1995년 38만2천여 가구로 빠르게 증가한다. 2000년에 오면 혼자 사는 가구가 무려 오십만을 넘어선다. 이 속도가 지속되어 2015년 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다. 1980년에 비해 지난 35년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무려 13.5배 증가하였다.

서울의 자치구별 1인가구 변화 현상 역시 주목할 만하다. 1990년 기준 서울의 자치구 중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구로구로 당시 2만1천여 가구가 1인가구였다. 2000년에 오면 강남구의 1인가구가 3만4천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관악구로 2만9천여 가구가 1인가구로 살고 있었다. 2015년 기준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로 10만여 가구가 1인가구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의 1인가구 밀집 지역이 서울 중심부와 서남부권 중심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의 1인가구 밀집 지역은 동남부권의 밀집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1인가구 밀집 지역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서울시 지역별 연령별 1인가구 규모를 살펴보자. 청년(20-39세) 1인가구 규모는 관악구가 64,036가구로 가장 많고, 강남구 34,041가구, 동작구 31,838가구, 광진구 31,838가구 순이며, 전체 가구 수 중 청년 1인가구의 비중은 관악구 26.8%, 광진구 19.5%, 동작구 19.0%, 마포구 18.7%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40-64세) 1인가구 규모 역시 관악구가 25,532가구로 가장 많고 강서구 21,886가구, 중랑구 21,206가구, 송파구 20,604가구, 강남구 19,80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65세이상) 1인가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노원구로 11,350가구가 노인 1인가구이며, 강서구 10,390가구, 은평구 9,768가구, 관악구 9,640가구, 성북구 9,15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증가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 수도권의 1인가구는 약 14만 가구였다. 이후 서울과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약 239만 가구가 수도권에서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다. '80년에 비해 무려 16배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 가구의 변화 속도가 놀랍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인구 가구의 재구조화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요소들은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과 함께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까지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이에 따른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非)혼과 만혼의 증가가 원인의 한 축을 차지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구조 자체의 변화로서의 이혼·별거 등 경제적 빈곤함에 기인한 가족해체, 교육문제와 결부된 기러기가족이나 직업적인 이유로 별거가족 증가,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 증가 등의 요인들이 급격한 1인가구 증가의 다른 한 축을 차지할 것이다.

도시의 여러 사회문제들이 그러하듯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1인가구의 빠른 증가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적 개입 역시 다면적이고 다층적이어야 한다. 20대에서 30대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결혼할 엄두를 못 내는 소위 '산업예비군' 그룹인 청년 1인가구, 4~50대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형성된 '불안한 독신자 그룹', 고령화의 영향인 실버세대 고령자 1인가구 등이 사회 정책적 대상이 되는 1인가구 유형들이다. 서울에는 다양한 1인가구가 살고 있다. 이들 중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비자발적 1인가구들이 마주한 공통의 문제는 '고립'과 '사회적 빈곤'이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인가구와 관련해서 이들 집단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렌즈를 통한 다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1인가구 총량적 성격뿐 아니라 성별, 생애주기별, 지역 특성이 반영된 관점에서 1인가구 삶의 질을 분석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어떤 정책적 수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와 안전 문제, 중년 1인가구의 노후와 사회관계 문제, 고령 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과 관계 부재 문제에 대한 실증적 증거에 근거하여 의제 영역과 개별 정책이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중고령자 1인가구는 여러 의미에서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집단이다. 반면 이들의 삶은 목록치 않은 경제 상황과 낮은 삶의 질, 공동체 연결성이 점차 낮아지는 관계망 현황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의 인생주기에서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삶의 불안정성과 고립감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중심의 연결망을 통한 지원서비스 정책은 지역의 동질성을 파악한 후(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기반한 관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고령 1인가구의 경우 나이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만큼이나 혼자 살기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노인여가시설 이용경험이 50%를 약간 밑돌며(서울여성가족재단, 2016), 1차치구 1시설로서의 노인여가시설이 고령 여성 1인가구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미 지역사회에 기반시설화 되어있는 노인여가시설을 고령 여성 1인가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프로그램 영역에서의 제안), 이들을 위한 지원을 노인여가시설을 기반으로 실행될 수 있는 체계나 제도를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령 1인가구는 중고령자와 유사한 낮은 경제지위, 고립감,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 삶의 마무리 단계로의 이행을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는 작은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맞이할 죽음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1인가구의 문제는 온전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의 문제는 결국은 그들 사회 전체가 함께 다루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발표 ②

가족의 변화, 1인가구의 의미와 과제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가족의 변화, 1인가구의 의미와 과제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1. 가족의 변화, 1인가구의 부각

1) 통계적 현상과 시사점

한국가족의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최근 20년 주기를 살펴볼 때 <표 1>의 가구원 수별 가구분포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인가구의 증가이다. 1인가구는 1980년 4.8%에서 2000년 15.5%, 그리고 2017년에는 28.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 형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는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1인가구가 가족 형태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은 2017년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가구, 2025년에는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가 되어 향후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족 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17). 이제 1인가구가 ‘주된 가족 유형’으로 명시되고 있는 것이다.

<표 1> 가구원 수별 가구분포

(단위: %)

가구원수별	1980	189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1인가구	4.8	6.9	9.0	12.7	15.5	20.0	23.9	27.2	28.6
2인가구	10.5	12.3	13.8	16.9	19.1	22.2	24.3	26.1	26.7
3인가구	14.5	16.5	19.1	20.3	20.9	20.9	21.3	21.5	21.2
4인가구	20.3	25.3	29.5	31.7	31.1	27.0	22.5	18.8	17.7
5인가구	98.6	76.9	63.9	40.6	32.4	28.5	27.7	26.2	25.5
6인가구	14.7	12.4	5.9	3.8	2.4	1.7	1.4	1.1	1.0
7인가구 이상	15.2	7.2	3.9	1.7	0.9	0.6	0.5	0.3	0.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2) 정책적 대응과 한계, 그리고 대안

1인가구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정보사회의 진전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심화, 청년세대의 결혼관 변화 및 초혼 연령 상승, 인구의 고령화 등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 1인가구 형태들은 성별, 연령, 계층 등에 따라 각기 처한 상황들에 따라 형성되어 비혼가구, 청년 1인가구, 이혼·별거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연화, 2018). 1인가구의 성별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까지는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남성 1인가구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 이후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향후 증가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통계청, 2018). 서울시를 중심으로 <표 3>의 성별·연령별 1인가구의 추이를 보면

29세 이하에서는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남성 1인가구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30대에서 50대까지는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다. 그리고 60대 이후는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1인가구의 증가배경, 형성요인들, 그리고 다양한 형태들이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현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성별과 연령의 교차는 정책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임은 분명하다.

〈표 2〉 전국 성별 1인가구 추이(2005~2035)

(단위: 천가구, %)

전국(년)	총 1인가구	여성	남성
2005	3,171	1,753(55.5%)	1,418(44.7%)
2010	4,142	2,218(53.5%)	1,924(46.5%)
2015	5,203	2,610(50.2%)	2,593(49.8%)
2016	5,398	2,722(50.4%)	2,676(49.6%)
2017	5,562	2,766(49.7%)	2,797(50.3%)
2018	5,739	2,843(49.5%)	2,896(50.5%)
2025	6,701	3,234(48.3%)	3,466(51.7%)
2035	7,635	3,650(47.8%)	3,985(52.2%)

자료: 통계청, 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표 3〉 서울시 성별·연령별 1인가구 수(2017)

(단위: 명, %)

지 역	성별		연령별					
			29세 이하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서울	전체	1,180,540(100.0)	297,209(25.2)	265,742(22.5)	175,037(148)	157,452(133)	137,437(116)	147,663(125)
	남성	561,524(100.0)	134,853(24.0)	149,423(26.6)	102,078(182)	85,941(15.3)	54,362(9.7)	34,867(6.2)
	여성	619,016(100.0)	162,356(26.2)	116,319(188)	72,959(118)	71,511(11.6)	83,075(134)	112,796(182)

자료: 통계청, 2017

선행연구들은 1인가구들에서 나타나는 빈곤, 사회적 소외, 건강과 안전 등의 정책이슈들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응하고자 중앙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2018.1.16., 일부개정)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정했다(제15조). 지자체별로 서울시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2016.3.24.)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6.11.2.), 세종특별시는 「세종특별자치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7.9.29.)를 제정한 바 있다. 그 외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또는 특정 연령층인 노인·장년층 고독사 예방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이연화, 2018). 이러한 노력들은 1인가구 상황에 대해 사회정책제반 시스템들을 통해 정책대상으로서의 지원과 지원범위를 고려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한계들은 계속해서 노정되고 있다. 본인은 가족의 변화 속에서 1인가구들이 보편화되어가는 추세라면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향과 계획은 그 접근 방법을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1인가구로서 나타나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유형들을 통해 나타나는 새롭게 의미되어지는 관계로 접근해 보는 것이다.

2. 1인가구의 의미, 가족개념의 확장, 그리고 관계의 출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과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 이러한 고도정보화 사회는 가족의 개념 및 형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자랐지만 디지털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디지털 이민자 (digital immigrant)’들이 있으며 온라인 속에서 자라고,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은 세계를 생각할 수 없는 디지털 세대들이 공존한다. 특히 디지털 세대들은 그들의 기대 및 행동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따라, 가족의 개념과 형성은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 로봇의 상용화와 가족구성원으로서 로봇의 의미, 가족으로서 애완동물의 위치 등은 인간 이외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혁명적 가족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신종 서비스로 “가족을 빌려드립니다” 는 가족이 서비스로 상품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동영상 [지구촌 IN] 일본 신종 서비스 “가족을 빌려드립니다”[입력 2019.05.28. (10:49) 수정 2019.05.28. (15:53) 지구촌뉴스] 저녁 시간이 다가올 무렵 양손 가득 장을 본 아내와 딸이 집으로 돌아오고 온 가족이 함께 시시콜콜한 일과를 나누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단란한 모습. 그런데, 누가 봐도 평범한 이 가족은 사실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카즈시게 니시다/회사원 : “원래는 여기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딸들은 독립하기 위해 집을 떠났어요. 매일 집에 올 때마다 외로워요.”]

이러한 가족의 변화 모습들은 가족의 개념이 점점 견고한 하나의 사람, 집단 중심이 아닌 외형이 없는 개인들의 점들이 연결되는 무수한 선들로 변화하고 있는 유연성을 가진 다양한 관계로 정의되게 하고 있다(그림 1). 장혜경외(2011-2014)의 2030년을 전망하며 수행한 4개년의 미래가족연구는 이를 보다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가족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형성되는 개인들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 조명과 대응을 기 강조한 바 있다.

〈그림 1〉 가족개념의 변화



자료 : 장혜경외 2014, p.35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서 모든 관계의 출발이 ‘나 자신’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든 어쨌든 매우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관계의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할 경우, 내가 선택한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정보사회는 디지털 소통의 특징인 비대면성, 개별성, 확장성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가벼우면서도 느슨한 인간관계를 확산시키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삶과 관계에서 출발지점이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가족 속에 포함된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의미는 약화되는 반면 개인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관계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의미되어지는 가족의 소통과 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공덕동하우스’ 나 ‘사이버팸’은 그 예가 될 것이다. 한국과 같이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형성된 디지털 자아는 더욱 유동적으로 되기 쉬워 그 결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자신의 삶의 준거를 전통이나 제도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자 하는 개인화 경향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다 (김혜경, 2017), 나-나-나 세대 (Me Me Me Generation)만이 아닌 50-60대에게서 가족보다 내가 중심인 리본 세대 (Re-born Generation)의 등장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작가 홍주현(2019)은 「환장할 우리가족」에서 ‘우리’라는 집단으로서의 가족이 아닌 ‘나’와 ‘너’의 가족, 그 의미와 개인의 의식전환 이야기들을 조명하면서 디지털 글로벌시대와 함께 가족은 더욱 그 관계가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과제, 새롭게 의미되어지는 가족의 소통과 관계의 증진

새롭게 의미되어지는 가족에서 기본적으로 관계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관계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것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중심으로의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과 함께 관계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것을 달라지게 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IT와 같은 정보화 기술의 변화는 이를 더욱 촉진하거나 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1인가구는 물론 다양한 가족 모습들은 단독적 개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관계 맺기를 할 것이며 현실과

가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확장된 공간 속에서 '위로-절대적인 믿음, 사랑-정신적 가치, 배려-개인 책임의 감소'라는 느슨하면서도 친밀한 가치를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 및 청년 세대들에게서 가족의 의미를 둘러싼 다양한 정보, SNS를 통해 유통되는 기쁨과 슬픔의 집합적 정서들이 더욱 부각되면서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새로운 소통과 관계의 증진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들과 그 구성원들이 갖는 가치관에 대한 인정과 공존의 삶일 것이다. 가족의 변화는 부모 세대, 자녀세대 등 모두에게 가족에 대한 다른 개념과 사유체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n개의 가족 형태들이 다양한 소통방식과 관계를 요구하면서 개인들의 연대를 통한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통과 관계 중심의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를 창출해 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의 세상에서 보다 따뜻한 디지털 세상(Digital Inclusion)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의 세계에서 따뜻한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와 공동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1인가구 증가에 대한 가족정책의 중요한 일면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경. 2017. "스위트홈의 꿈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구성의 회로 찾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7, 11. pp.87-102
- 이연화. 2018. 「제주지역 여성1인가구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장혜경외. 2011-2014.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 (I-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통계청, 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 통계청. 2017.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
- 홍주현. 2019. 「환장할 우리 가족」. 문예출판사

발표 ③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사항과 과제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사항과 과제¹⁾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 서울시 1인가구 현황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1인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2045년 서울시 가구 추계의 1인가구 수는 1,339,015가구로 예상된다.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 이들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서울시 1인가구를 성별과 연령으로 보면 여성 1인가구 경우에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남성 1인가구 경우에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별 연령대 분포를 보면 광진구와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는 25~29세와 같은 젊은 층의 1인가구가 많았고 나머지 자치구에서 1인가구는 60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는 25~29세와 30~34세 남성 1인가구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 20~24세, 25~29세와 30~34세 1인가구의 수가 높았다. 또, 서울시 자치구별 대다수 남성과 여성의 1인가구 거처는 단독주택임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 성별 또는 연령에 따라 또는 그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자치구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 현황

자치구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							홈페이지	최근 프로 그램 진행 년도	기타
	교육명	대상	프로그램 내용							
			생활 역량 교육 (의식주 /재무)	심리 검사 및 상담	돌봄 나눔	여가 문화	지역 연계			
종로구	Single한 삶, 벅글하게	20~30대 청년 1인가구	O	O				jongno.familynet.or.kr	19년	
중구	-	-						sujung.familynet.or.kr		
용산구	-	-						yongsan.familynet.or.kr		
성동구	-	-						sdfc.familynet.or.kr		
동대문구	나도혼자산다	20~40대 미혼남녀 1인가구	O	O	O	O		ddmhfc.familynet.or.kr	19년	
성북구	다가치행복 청년봉사단	20~30대 1인가구			O			sbfc.familynet.or.kr	19년	
	2030세대 '싱글끼리'	20~30세대 직장인 또는				O				

1) 본 발제 내용은 2019년 연구된 “서울지역 자치구 유형별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의 내용에 근거함을 밝힌다.

자치구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							홈페이지	최근 프로 그램 진행 년도	기타
	교육명	대상	프로그램 내용							
			생활 역량 교육 (의식주 /재무)	심리 검사 및 상담	돌봄 나눔	여가 문화	지역 연계			
	모임을 지원해요	1인가족								
도 봉 구	통합프로그램- 자기방어훈련 (호신술)	여성1인가구	○					dobong.familynet.or.kr	19년	
	30대여성 1인가구 소모임 활동지원	30대 여성 1인가구				○				
은 평 구	청바지 in day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중장년층(40~ 50대) 1인가구	○				○	eunpeong.familynet.or.kr	19년	
서대문구	동고동락-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40~50대 1인가구	○		○	○		sdmfc.familynet.or.kr	19년	
마 포 구	-	-						mapo.familynet.or.kr		
강 서 구	-	-						gsfc.familynet.or.kr		
구 로 구	-	-						gurofc.familynet.or.kr		
영등포구	-	-						ydpfc.familynet.or.kr		
동 작 구	-	-						dchfc.familynet.or.kr		
관 약 구	1인가구 탐구생활	청년 2030세대					○	gwanak.familynet.or.kr	19년	
강 남 구	청년 1인가구 사업 '식구'	20~30대 청년 1인가구	○	○				gangnam.familynet.or.kr	19년	
	1인가구 YOLO 놀러와요 우쿨렐레랄라	20~30대 1인가구	○				○		18년	
강 동 구	-	-						gangdong.familynet.or.kr		
중 랑 구	낭랑(朗浪)한 1인 생활	20~30대 청년 1인가구	○		○	○		jungnang.familynet.or.kr	19년	
노 원 구	-	-						nowon.familynet.or.kr		
양 천 구	여행(여성들의 행복한 라이프)	여성 1인가구	○					ychc.familynet.or.kr	19년	
송 파 구	-	-						songpa.familynet.or.kr		
서 초 구	서리풀 싱글싱글 문화교실	청장년 1인가구	○		○	○		seocho.familynet.or.kr	19년	1인가구 지원팀
광 진 구	꿈꾸는싱글라이프	20~30대 1인가구	○	○				gwangjin.familynet.or.kr	18년	
강 북 구	-	-						gangbuk.familynet.or.kr		
금 천 구	4050! 브라보 꽃중년	중년 1인가구 (노후준비 및 건강관리 방법 교육)	○					geumchfc.familynet.or.kr	19년	홈페이지 미기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각 센터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시작과 내용은 각자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0~30대 청년층이나 40~50대 장년층으로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도입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대부분 생활역량강화의 내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생활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센터 자체에서 진행하거나 강사진을 섭외하여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사회 기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 사업 진행 담당자 미팅 내용 〉

구분	대상	애로사항	과제	권역별타겟에 대한 의견
A	여성 (생애주기 별로)	-모집, 홍보	-매뉴얼, 가이드라인 필요 -1인가구 실태자료	-타겟만 강조할 때 누락되는 대상에 대한 고려 -자기돌봄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확보되어야 함
B	20-40대 남녀 비혼	-프로그램 담당 전문가 모집 -실적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사업관리 힘들	-경제교육 필요 -대략적인 매뉴얼 필요 -홍보 필요	-타겟이 남성인 경우, 현재 주 이용자가 여성이라 모집의 어려움 예상 -타겟 대상 특화프로그램 뿐 아니라 공통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면 좋을 것임(자기돌봄, 봉사활동)
C	중장년기 남성(이혼) 20-30대 미혼	-모집 -적절한 홍보전략 없음	-대상별 효율적인 홍보 -대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이어지는 네트워크 방안	-대상별 참여 가능한 시간대 조사가 필요 -원가족과의 관계, 자기돌봄, 미래설계 등 필요
C	20-30대 남녀	-모집, 강사섭외	-홍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 -지역사회자원연계 -매뉴얼, 우수사례 사업공유	-타겟 뿐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도 프로그램 제공 -남녀구분의 필요성 재검토
D	40-50대 (저소득층, 일용직) 중년 남성	-지역사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힘들. -홍보 -운영(여성실무자가 운영하기에 힘든 부분)	-경제활동 지원 -홍보 -타기관 프로그램과 연계	-타겟 선정 자체는 적절하나, 타겟만 대상이 되는 것보다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이 좋음
E	20~30대 청년 남녀	-모집 -수요조사 미비 -참여자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전달하는 문제	-청년 남성 1인가구 모집이나 홍보 -어떤 모습으로 지원해야 할지 방향성, 목적 등이 설정되어 지원사업이 마련될 필요 있음	-지역의 분포된 1인가구로 타겟팅은 어려움 -참여도가 높은 집단과 분포도가 높은 집단 중 어디를 타겟팅 할 것인가?
F	20~30대 미혼 남녀(1인가구와 예비1인가구 포함)	-모집의 어려움 -불참율(참여율 저하)의 문제 -적합한 강사 섭외 문제	-공공에서 1인가구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재발견	-타겟을 선정하는 문제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나 그들을 모집하는 문제가 어려움
G	해당 거주 및 재직 1인가구	-인력부족의 문제 -관련기업이나 유관기관(수리업체, 통신업체 등)	-토털서비스 제공. -건가센터만의 고유 서비스(상담 등)와 연계하는 과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각 세부사업별로 대상이 세분화 -구별로 특성화된 사업은 가능하지만,

구분	대상	애로사항	과제	권역별타겟에 대한 의견
	우선	과의 업무 연계 과정		타겟팅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봄
H	40-50대 남녀(기혼 포함)	-모집, 홍보 -예산사용 -개성있는 참여자 관리	-1년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 고민 -가족관계, 이성친구관계 등의 내용 접목	-타겟을 남녀 구분할 필요 없음 -동일한 타겟이어도 센터마다 프로그램은 다를 것임(예, 저소득층 포함 여부, 담당자의 배경과 역량)

3.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

- 1) 권역별 타겟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 집단 구별의 강점과 약점 이해
 - 강점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의 가능성, 참여자 간 공감대 형성기회 제공
 - 약점 : 대상자모집, 대상자누락, 통합프로그램 기회 결여 등
- 2) 1인가구를 위한 보편적인 공통 프로그램 필요(연령별·영역별 프로그램 모델)
 - 생활역량강화(자기돌봄) 프로그램 모델 : 20-30대 미혼/40~50대 미혼 기혼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모델 : 20-30대 미혼/40~50대 미혼 기혼
 - 사회적 관계향상 프로그램 모델 : 20-30대 미혼/40~50대 미혼 기혼
- 3)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선택하거나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의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 설정
 - 공공에서 1인가구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 발견하기
 - 1인가구 사업을 센터에서 하는 목적, 이후 방향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4.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인가구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의 거점기관의 위상 정립의 목표 설정
 - 1인가구를 위한 Total Service 제공기관(교육·상담·문화 등)이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능 강화(지역사회 자원과 유관기관 연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강점을 살려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상담, 원가족과의 관계지원 교육 등) 병행
- 2) 건강가정사의 역량 강화
 - 1인가구 전담인력으로서의 자격 부여 및 재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생활 컨설턴트)
 - 1차 상담-프로그램 연계-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

3) 광역센터의 역할과 지원

- 1인가구의 실태, 욕구 등과 관련된 정기적인 기초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공유
- 1인가구 프로그램의 홍보, 대상자모집 등에 대한 지원 역할
- 각 센터의 사업운영에 대한 사례발표와 공유의 기회 제공

4) 1인가구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

- 1인가구의 요구와 수요의 특성
-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전문인력들이 기존의 프로그램 콘텐츠를 1인가구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정의 과정이 필요

5) 1인가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원 활용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전담인력 재교육, 홍보 등 프로그램 운영 전체 과정에 투입 되는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자원 활용

6) 서울시 자치구 1인가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과제 제안



종합토론

토론 ❶

서울시 1인가구 현황과 정책이슈

-1인가구의 다름을 고려한 정책방향-

김유경 (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주제: 서울시 1인가구 현황과 정책이슈
- 1인가구의 다름을 고려한 정책방향-

김유경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지난 2011년 서울시 경우 1인가구가 ‘표준가구’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온 4인가구의 비중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놀랍게 다가왔었던 기억이 난다. 현재는 서울의 1인가구의 비중은 32.0%(2018년도 기준)로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홀로 하는 가구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인가구를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1인가구는 정책적으로 불리함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 청약 등 기존 제도들은 대개 자녀를 둔 3~4인 가구 우선이며, 비혼이나 1인가구들은 연말정산과 같은 세제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또한, 실태를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텐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대상도 2인 이상 가구로 1인가구는 빠져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수립은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인가구’라는 하나의 틀로 보기에 1인가구는 너무나도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인가구의 문제로 제시하는 경제(빈곤), 주거, 외로움(사회적 소외), 건강이라는 문제는 1인가구 전체에 대체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임은 맞지만, 아래 그림에서처럼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그 순위가 다르며, 20대는 주거, 남성은 식사, 여성은 안전이라는 다른 하위집단에 없는 걱정거리가 중요순위로 꼽힌다. 그만큼 1인가구 정책은 대상별 ‘맞춤형’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1인가구 총량적 성격뿐 아니라 성별, 생애주기별, 지역 특성이 반영된 관점에서 1인가구 삶의 질을 분석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어떤 정책적 수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서울경제(2019년 8월 1일)

또한, 같은 하위집단 안에서도 같은 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여지가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30대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비혼을 전제한 지속적으로 1인가구를 유지하는 집단도 있겠으나, 생애주기상 일시적 1인가구인 경우도 상당할 것인데, 이들의 문제는 겉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그 대책은 다를 수 있다.

한편 세대별 1인가구의 특성과 문제가 향후에는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를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현재는 이혼 및 사별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노인 1인가구와 유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나, 현재의 청년 1인가구 중 상당수가 중장년 1인가구로 넘어가는 향후에는 현재의 청년 1인가구와 그 특성이 유사해질 것이다(김은정, 2017). 더불어 중장년 1인가구는 1인가구 중 정책적 관심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집단인 반면, 서울시 1인가구의 28.1%(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요한 집단인 만큼 이들에게도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은 1인가구로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1인가구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또한 ‘나’ 또는 ‘우리’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인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정책으로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지원의 창구를 마련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은정(2017). 중·장년 1인가구에 관한 소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7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경제 2019년 8월 1일자 기사. [관점] 가족형태 변하는데 제도는 ‘4인’ 중심. 정책 패러다임 확 바뀌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SVCKJ76>

토론 ②

가족의 변화, 1인가구의 의미와 과제

-1인가구의 일상과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접근-

서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교수)

주제: 가족의 변화, 1인가구의 의미와 과제
-1인가구의 일상과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접근-

서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교수)

최근 한국사회에서 1인가구가 형성되고 지속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과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전망하며 관련된 정책과제 역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독거노인의 생활에 대한 복지적 관심에서 시작하였으나, 최근 세대별, 계층별, 성별로 다양하게 살아가는 1인가구에 대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의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생애주기의 어느 한 시점에 한정된 경험으로서의 1인가구의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국사회의 경제구조의 불안정성, 가족가치 변화 등에 따라 ‘혼자 꾸려가는 삶’에 대한 지향이 혼재되면서 1인가구의 장단기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그에 따른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떤 대상 혹은 영역으로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1인가구의 양적 증가 자체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은 물론, 1인가구로서의 ‘동질적’인 삶의 방식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 1인가구 간 상당한 ‘이질성’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1인가구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1인가구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접근, 즉 청년, 중년, 노년 1인가구 간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전환되는 시기의 1인가구 지속 여부, 아직은 1인가구가 아니지만 1인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1인가구 예비군에 대한 문제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장기적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득 계층 요인에 따른 정책적 수요의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1인가구 정책 중 주거정책과 현금성 지원 등에 대한 정책대상과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가족정책의 주요영역으로서의 1인가구의 복합적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때 남성과 여성의 일상생활의 성차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 외로움과 불안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연대와 지지망 형성을 위한 가족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역시 일상생활의 지원방안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1인가구 정책의 목표를 책임성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의

거점 전달체계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건강가정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생활교육, 상담, 여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 ③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사항과 과제

-서울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획조정실장)

주제 :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고려사항과 과제
-서울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성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획조정실장)

서울시는 1인가구 증가추세에 맞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제 발표자는 서울시 각 구별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 내용과 대상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표 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사항)

1. 타겟 대상의 특성을 반영할 것
2. 1인가구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통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생활역량강화, 가족관계증진, 사회적 관계향상 등)
3.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것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고려할 사항)

나아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인가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브랜드 사업화 할 것
2. 1인가구 현상에 대한 조사와 결과를 참조할 것
3. 1인가구 프로그램 전문가를 확보할 것
4. 1인가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원을 확대해 나갈 것

위의 제언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과 기관에 초점이 맞춰진 제안으로 매우 적절하다 할 수 있으나,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도 가능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1인가구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의 특성이 아니라, 1인가구는 동거인이나 가족과 한 공간에 매일 머무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갖는 취약함이 있다. 정책은 가족의 기능을 사회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지만, 정책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갖는 효과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인가구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 궁극적으로는 혼자이기 때문에 갖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아플 때의 위기감
-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요구
- 하지만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혼자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존중

- 학습되지 못한 자기 돌봄과 가정관리 역량 강화
- 지역사회 내 정보로부터의 단절
- 나의 생활, 자산, 건강에 대한 나홀로 책임에 대한 부담
-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기 원할 때 시간과 장소의 선택 필요

따라서, 위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그것이 꼭 1인가구만의 참여일 필요는 없으며, 1인가구가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도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길 제안하며, 다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매우 정기적이고, 규칙적일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의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프로그램은 그들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으나, 그 때는 센터에서는 가능한 공간, 홍보 등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제안하고 싶다.

센터 내에서 매주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1인가구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센터사업의 브랜드화와 고정 이용자 확보 및 홍보에 유리하다. 일 예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1인가구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베품시장
매주 금요일은 인구학적 특성에 맞춘 1인가구들의 파티 장소 제공
매월 셋째주 토요일은, 운동, 영화 등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 제공 등
매월 마지막주 특정일은 혼자 생활하기 노하우, 혼자만의 공간 가꾸기, 나를 나답게 만들기 등 소중한 정보나 지식 나누기 특강과 같이 프로그램이 있는 시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원할 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위와 같이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고, 원할 때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센터에서는 기획하고 만들어 제공하는 프로그램보다 위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인 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1인가구 스스로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참여자가 되게끔 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활동가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이웃을 갖게 하며, 위급 시 도움받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 공동체의 일원이자 자기 성장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에 의의를 갖게 만드는 방법을 센터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memo

memo

memo

2019 서울시 1인가구정책세미나

발행일	2019년 10월
발행인	권금상
발행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편집인	교육지원팀
주 소	서울시 중구 소파로4길 6
전 화	(02) 318-8168
팩 스	(02) 318-0228
홈페이지	www.familyseoul.or.kr

이 책의 판권은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으며 동의 없는 무단복제를 금합니다.